금융감독원	보 도 참 고	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2.10.27.(목) 조간	배포	2022.10.26. (수)

담당부서	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	책임자	팀 장	손인수	(02-3145-5190)
		담당자	선임조사역	김동식	(02-3145-5193)

[금융꿀팁 200선] <133>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

□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**실용금융정보(금융꿀팁)** 200가지를 **선정**, 알기 쉽게 정리하여 **보도참고자료**를 통해 **안내**하고

◦ 동시에 '16.9.1일 개설한 **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"파인"**(FINE)에도 **게시**하고 있음

□ 이에 따라 133번째 금융꿀팁으로, "**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**"를 **별첨**과 같이 **안내**해 드림

< "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" 핵심포인트 >

1 소비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(확정급여형[DB], 확정기여형[DC])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2 폐업·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(퇴직연금사업자)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3 기업(사용자)이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, 근로자(가입자)는 기업(사용자)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4 확정급여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, 금융회사(퇴직연금사업자)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

5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·개인형IRP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회사(퇴직연금사업자)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<별첨> 금융꿀팁 200선-⑬③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

금융꿀팁 200선 – ⑬③

제 목	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

사 례 및 꿀 팁

▪ **(사례1) A씨**는 10년차 직장인인데, 현재 근무중인 회사가 **퇴직연금제도**를 **도입**했는지, 본인은 **확정급여형(DB)**인지 **확정기여형(DC)**인지, 금액은 **얼마나 적립**되어 있는지 궁금하지만, 고용주에게 직접 묻기도 쉽지 않아 고민 중

1 소비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(확정급여형[DB], 확정기여형[DC])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우리나라는 현재 **퇴직금**(퇴직금 사내적립)과 **퇴직연금**(퇴직금 사외적립) **제도**가 **병존**하고 있으며, **퇴직연금제도**는 다시 **확정급여형**(이하 'DB형')과 **확정기여형***(이하 'DC형')으로 구분됩니다.

* 10인 미만 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기업형IRP도 DC형과 동일한 내용

구 분	확정급여형(Defined Benefit)	확정기여형(Defined Contribution)
개 념	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는 퇴직시 받을 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*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* 계속근로연수×퇴직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	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/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(중간정산과 유사)하는 퇴직연금제도
운용주체	기업(사용자)	개인(근로자)

본인이 **퇴직연금제도**에 **가입**되어 있는지, 가입되었다면 **DB형**인지 **DC형**인지 등 **관련 정보**는 금감원의 「**통합연금포털**(100lifeplan.fss.or.kr)*」을 활용하면 이를 **쉽게 확인**할 수 있습니다.

* 네이버,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서도 접속 가능
통합연금포털 > 내 연금조회·재무설계 > 내 연금조회 > 연금계약정보
☞ (붙임)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는 방법

다만, **최초 이용시**에는 **많은 금융회사**(퇴직연금사업자)로부터 **데이터**를 **전송**받아야 하므로 신청일로부터 **3영업일** 후에 **조회**가 **가능**(안내문자 등 별도 발송)하며, **DB형**은 **가입여부**만, **DC형**은 **가입여부** 및 **실제 적립액**까지 **조회**가 가능합니다.

제 목	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

사 례 및 꿀 팁

▪ **(사례2) B씨**는 자신이 다니던 **회사**가 **폐업**하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데, **퇴직연금 가입여부** 및 **가입**한 **금융회사**를 **알 수 없어**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함

2 폐업·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(퇴직연금사업자)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통합연금포털을 통해 **본인**의 **퇴직연금 가입**이 **확인**된다면, **폐업·도산 기업**의 **근로자**는 **해당 금융회사**(퇴직연금사업자)에 **퇴직연금**을 **직접 청구**하여 **수령**하실 수 있습니다.

따라서, **통합연금포털**에서 **퇴직연금 가입**이 **확인**될 경우,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,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**퇴직사실**을 **증명**할 수 있는 **서류**(택1)와 **본인 신분증** 등을 **해당 금융회사**에 **제출**하고 **퇴직연금 지급**을 **신청***하시면 됩니다.

* 구체적인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은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(콜센터) 등에 문의할 필요

< 퇴직사실 입증서류(택1) >

첨부서류	발급처
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	고용보험 홈페이지
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	정부24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
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	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
참고로, **DB형**은 **퇴직금 제도**와 **동일**한 **금액***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, 폐업·도산 기업의 **적립금**이 **부족**한 경우 **적립비율****에 **비례**한 **금액**을 지급하는 한편, **DC형**은 **가입자 계좌**에 **적립**되어 있는 **금액**을 지급합니다.

* 계속근로연수 × 퇴직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
** DB형 계좌의 적립금 ÷ 전체 가입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

제 목	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

사 례 및 꿀 팁

▪ **(사례3) C씨**는 **DC형 퇴직연금제도**에 가입한 15년차 직장인으로 **최근**에 **회사**가 자신의 **부담금**을 **납입**하지 **않았다**는 것을 **금융회사**(퇴직연금사업자)로부터 **통지**받게 되었는데, 이러한 경우에는 **어떻게 대응**하는지 궁금함

3 기업(사용자)이 DC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, 근로자(가입자)는 기업(사용자)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현행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등에 따르면, **DC형**의 경우에는 **기업**(사용자)이 **매년 1회 이상** 정기적으로 **가입자**(근로자)의 계정에 **부담금***을 **납입**하여야 하며, **금융회사**(퇴직연금사업자)는 **부담금**이 **1개월 이상 미납**된 경우 그로부터 **10일 이내**에 **가입자**에게 **알려야** 합니다.

* 가입자(근로자)의 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아울러, **기업**(사용자)이 정해진 기일*까지 **부담금**을 **미납**할 경우에는 **운용손실 보전** 등을 위해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**지연이자**(10~20%)**를 **납입**하여야 하므로, **가입자**(근로자)는 부담금 이외에 **지연이자**까지 받을 수 있는 **권리**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* DC형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

** 부담금 납입기일의 다음날~급여지급사유(퇴직 등) 발생일로부터 14일까지 : 연 10%
급여지급사유(퇴직 등) 발생일로부터 14일의 다음 날~부담금 납입일 : 연 20%

< 부담금 납입 지연이자(도해) >

제 목	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

사 례 및 꿀 팁

▪ **(사례4) D씨**는 **DB형 퇴직연금제도**에 가입한 10년차 직장인으로 **자신**의 **퇴직급여**가 **제대로 적립**되고 있는지 궁금하나, **확인 방법**을 몰라 고민 중

4 DB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, 금융회사(퇴직연금사업자)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

금융회사(퇴직연금사업자)는 **퇴직급여*** **지급**을 위해 **DB형 적립금**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**일정수준**(이하 "최소적립금")** **이상**으로 적립되고 있는지를 **매 사업연도말로부터 6개월 이내**에 **확인**("재정검증")하고 **그 결과**를 **기업**(사용자) 또는 **근로자**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.

* "계속근로연수 × 퇴직직전 3개월의 월평균임금" 이상(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함)
** ~'21사업연도말 : 사업연도말 근로자가 일시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×90%
'22사업연도말~ : 사업연도말 근로자가 일시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×100%

재정검증 결과는 기본적으로 **기업**(사용자)에게 **서면**으로 **통보**되므로 **DB형 적립금 수준**이 궁금한 경우 **회사 퇴직급여 담당자**에게 **문의**하면 되고,

적립금이 **최소적립금보다 적은** 경우에는 **노동조합**(서면) 또는 **전체 근로자***(서면 또는 정보통신망)에게도 통보되므로, **노동조합**의 **소식지**, **사내게시판**, **본인**의 **우편·이메일** 등을 평소 **유의깊게 살펴볼 필요**가 있습니다.

*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

< 재정검증 결과 통보(도해) >

제 목	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
사 례 및 꿀 팁	▪ **(사례5) E씨**는 **DC형 퇴직연금제도**에 **가입**하였는데, 얼마나 **운용수익**을 내고 있는지 알고 싶으나, 그간 이에 대해 **안내**를 받은 적이 **없었음** **5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·개인형IRP*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회사(퇴직연금사업자)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** * (개인형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 이직·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통산하여 적립하거나,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 현행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등에 따르면, **금융회사**(퇴직연금사업자)는 **DC형·개인형IRP 가입자**에게 **우편 발송**, **서면 교부**, **정보통신망**에 의한 전송 등의 방법으로 **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** 및 **운용수익률** 등을 알려야 합니다. 따라서, 만약 **DC형·개인형IRP**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**운용수익률 통지**를 받지 **못하였다면 금융회사**(퇴직연금사업자)에 **관련 내용**에 대한 **통지**를 **요청**할 수 있으며, 향후 **운용수익률** 등의 **통지**가 **누락**되지 **않도록 본인**의 거주지 주소, 이메일 주소 등 **연락처**가 **제대로 관리**되고 있는지 **확인**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상기 자료는 관련 법령을 사례와 함께 요약·설명한 자료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등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법규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번없이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붙임	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는 방법

1단계

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접속(PC, 스마트폰 이용 가능)

○ 홈페이지(100lifeplan.fss.or.kr)에 접속

※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모바일에서도 직접 접속할 수 있으며 네이버,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"통합연금포털" 검색으로도 접속 가능

2단계

회원가입

① 이용 동의 및 인증

○ 금융거래정보의 요구,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,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

○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(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)

② 개인정보 입력

○ 본인이 사용할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록

○ 본인의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 등 연락처 입력

③ 회원가입 완료

3단계

연금정보 확인가능 알림

○ 본인의 연금정보 확인가능시**(3영업일 소요)** 이메일 등 안내

※ 최초 이용시에는 3영업일이 소요되지만, 이후 다시 이용하는 경우 로그인만 하면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

PC 구성 화면	모바일 구성 화면